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DARK FLOOD RISES

가제 : 죽음의 물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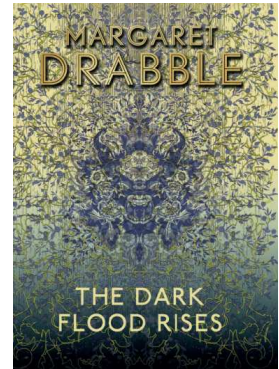
저자 : Margaret Drabble

출판사: Canongate Books

발행일: 2016년 11월 3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소설/ 현대문학



- * **2016년 「가디언」 우수 도서로 선정,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스웨덴 판권 계약 체결**
- * **“작가의 탁월한 능력은 우리의 시야를 전혀 새로운 범위로 넓혀준다.” – 「타임」 지**
- * **“아름다움, 재능, 놓쳐버린 기회와 시든 열정으로 빛어진 인생과 상실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발버둥치는 여러 등장인물들을 통해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설” – 커커스 리뷰**

나이가 들고 몸도 정신도 점점 허약해지고 있음을 스스로 느낄 때,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영국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꼽히는 작가는 70대를 넘긴 주인공 프란체스카를 통해 변화무쌍한 현대 사회에서 노화를 맞이한 노인들의 모습과 삶의 방식을 날카로우면서도 유쾌하게 포착했다. 프란체스카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여다보면서 늙는 것이 그저 놓친 것을 한탄하며 눈물 지을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작가 특유의 위트와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들려준다.

“이런 늙은 멍청이 같으니라고!”라는 말은 프란체스카가 스스로에게 중얼대는 단골 입버릇이 되고 말았다. 70세를 훌쩍 넘긴 그녀는 편안한 요양원 생활을 택한 친구들과 달리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는 쪽을 택했다. 돌아다니고 싶어도 몸이 아파 온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복 받은 일인가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다 만나면서 사는 것까지는 좋는데 그렇다고 노화를 피할 수는 없었다. 성질대로 고속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기도 하고, 나름 건축 전문가인데 자신이 사는 낡은 아파트 보일러 하나 고치지 않고 방치했다가 보일러가 터지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 다 태워버린 음식 연기가 아파트 복도를 가득 채우기도 하는 등 프란체스카는 요즘 온갖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닌다. 정말 입버릇처럼 ‘늙은 멍청이’가 되고 말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짐이 시작된 건

분명했다. 하지만 한탄만 하기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다. 평생 살아온 잉글랜드 곳곳을 죽기 전에 한 곳도 빠짐 없이 돌아보고 싶고, 건축 전문가로서 힘이 닿는 한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요양시설을 찾아 다니며 리모델링을 돕고, 관심이 가는 컨퍼런스에는 다 참석해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이혼한 지 수십 년은 됐지만 병이 나서 침대 붙박이 생활만 해야 하는 전 남편에게 저녁도 사다 날라야 하고, 크리스토퍼와 포펫 두 아이들도 챙겨봐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파티도 여느라 하루가 아까울 지경이다.

소설은 프란체스카의 주변 인물들을 한 명씩 소개하면서, 각자의 삶과 프란체스카와의 관계를 통해 각자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가만히 보여준다. 한때 잘 나가는 외과의사로 바쁘게 사느라 프란체스카와 두 자녀를 내팽개쳤지만 지금은 마리아 칼라스 노래만 온종일 들으며 헤어진 아내가 사다 주는 저녁 식사만 기다리는 남편 클라우드, 여자친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술독에 빠져 사는 아들 크리스토퍼, 홍수 피해가 잦은 지역에 굳이 집을 얻어서 사는 괴짜 딸 포펫, 암으로 죽어가는 프란체스카의 오랜 친구 테레사, 프란체스카처럼 인생 마지막 장까지 학자로서 삶을 충실히 살고 있는 친구 베넷까지, 소설은 프란체스카와 연결된 여러 인물들을 생생하게 그리며 이들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준다. 베케트와 우나무노, 예이츠 등 개개인이 심취한 음악과 시, 예술이 인물들의 삶과 절묘하게 결합되며 과거와 현재가 대조를 이루고, 홍수와 지진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피해 영국으로 유입된 난민들의 이야기 또한 프란체스카처럼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가까워오는 인물들의 이야기와 묘한 대조를 이룬다.

죽음, 죽어가는 것, '끝'의 의미를 여러 겹으로 고찰한 결과가 작가의 유쾌하고 능수능란한 이야기에 담긴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마거릿 드래블(Margaret Drabble)은 영국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을 모티브로 쓴 소설 『The Red Queen(번역서: 붉은 왕세자빈)』을 쓴 작가로 유명하다. 뉴햄 대학교를 졸업하고 『A Summer Bird- Cage』, 『The Millstone』, 『The Peppered Moth』 등 총 18편의 소설을 발표했으며 『The Pure Gold Baby』로 평단의 큰 호평을 받았다. 자서전 작가, 극작가로도 활동해 왔고 『옥스포드 영문학 안내서(Oxford Companion to English Literature)』 편집자를 맡기도 했다. 2011년 골든 펜 어워드(Golden PEN Award)를 수상했다.

제목 : TRY NOT TO BREATHE

가제 : 숨쉬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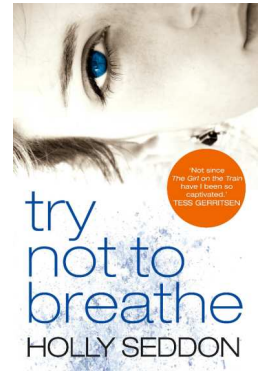
저자 : Holly Seddon

출판사: Ballantine Books

발행일: 2016년 2월 23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소설/ 심리스릴러



* 중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대만, 터키 판권 체결

* 영국에서 페이퍼백 출간 직후 **13만부** 이상 판매, 페이퍼백 베스트셀러 **20위권** 진입

* “헛갈리는 단서들과 무수한 장애물을 거쳐 주인공이 서서히 삶을 되찾는 최고의 심리 드라마” - 「인디펜던트」

겉보기에 멀쩡히 돌아다니는 사람도 정신은 결코 멀쩡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반대의 경우도 그럴까? 몸은 식물인간이 되어 겨우 호흡하고 심장이 뛰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정신은 온전할 수 있을까? 끊지 못한 음주와 알코올의 영향으로 사랑하는 이도, 사랑하는 일도 잃어버린 여자와 철없던 시절, 무모한 선택으로 정신이 꿈쩍 못하는 몸 속에 갇혀버린 여자, 같은 또래의 두 여자가 우연히 만나면서 시간은 멈춰버린 15년을 되돌아가기 시작한다. 『허즈번드 시크릿』의 리안 모리아티, 『걸 온 더 트레인』의 폴라 호킨스, 『살인의 숲』을 쓴 티나 프렌치를 잇는 무서운 신에 스릴러 작가가 쓴 데뷔소설에서, 두 주인공은 시간과 정신을 넘나들며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추적을 시작한다.

1995년, 열다섯 살이던 에이미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만다. 8개월째 든든히 곁을 지켜주는 남자친구 제이콥도 있고, 학교에서도 곧잘 어울리는 무리가 있고 양아버지와 엄마, 셋이서 지내는 집에서의 생활도 문제될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한 시절, 이상한 호기심을 자극한 사람을 만난 것이 탈이었다. 가족은 물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절대 몰라야 하는 사람, 에이미가 평생 물어가야 할 작은 비밀 정도로 생각했던 그 사람은 어린 에이미로서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다. 제이콥보다 어깨도 넓고 초록색 눈에 짙은 머리카락을 가진 그 남자는 엄마가 우연히 봤다면 “참 잘생겼다”고 할 만한 미남이었다. 또래 남자애들이 학교 복도에서 미친 듯이 까불고 소리를 질러대는 것과 달리 늘 진중하고, 자전거 대신 자동차를 모는 그 남자가 에이미는 은근히 마음에 들었다. 제이콥을 사랑하는 마음도 진심이었지만 제이콥은 키스만 할 뿐, 그 남자처럼 과감히 에이미에게 다가오지 못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순간, 에이미의 삶과 눈 앞에 펼쳐진 밝은 미래는 모두 부서지고 말았다.

한때 ‘타임지’의 대표적인 기자로 명성을 날리던 알렉스 데일은 그 화려했던 시절이 다 꿈처럼 흘러가버렸다. 술을 마셔대는 일상이 단순한 습관에서 중독자의 경계로 넘어가고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바람에 아기도 잃고, 깊이 사랑했던 남편도 다 알렉스의 곁을 떠났다.

명에도 추락했다. 서른 살을 갓 넘긴 알렉스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여전히 술과 싸우고 있다. 엄마에게 물려 받은 집에서 매일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고, 아침이면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달리고 오직 다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일에 몇 시간 빠져 살다가 다시 술을 들이키는 자학적인 삶이 쳇바퀴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나 신경장애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어느 병원에서 취재를 해오라는 일거리를 맡으면서, 알렉스는 생각지도 못한 희망의 가능성과 마주한다. 병원에서 에이미를 만난 것이다.

알렉스가 취재를 하러 간 병원에서는 식물인간이 된 환자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뇌 스캔 결과로 입증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알렉스는 주로 장기 신경장애 환자가 꿈쩍 없이 누워 있는 그곳 병원의 여러 사례를 조사하던 중, 15년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의 주인공 에이미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방과 후 학교에서 꽤 멀리 떨어진 집으로 매일 걸어서 오던 에이미는 어느 날 학교를 나선 것까지 목격된 후 감쪽같이 사라졌다. 무려 3일이 지난 뒤, 죽기 일보직전에 발견됐지만 온 몸에 잔혹한 폭력의 흔적만 남아 있을 뿐 에이미의 정신은 그 피멍이 든 몸에 갇히고 말았다. 그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른 알렉스는, 15년이 흐른 지금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란다. 아무 말도 못하는 에이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그리고 무너져 내린 자신의 명예를 되살리기 위해 알렉스는 자신이 범인을 찾아내기로 결심한다.

에이미의 주변 인물들을 한 명씩 취재하기 시작한 알렉스는 사고 당시 남자친구였던 제이콥과 알게 된다.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되고도 에이미가 겪은 끔찍한 사건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제이콥은 알렉스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하지만 늘 알렉스를 암흑의 구렁텅이로 내몬 술, 알코올의 매서운 영향이 다시 슬금슬금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이번 기회만은 절대 놓칠 수 없다고 굳게 다짐한 알렉스는 어떻게든 맑은 정신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이야기는 알렉스와 제이콥의 시선과 더불어 열다섯 살에서 시계가 멈춰버린 에이미의 혼란스러운 기억을 함께 들려주며 긴장감을 더한다. 작가의 독특한 상상력과 치밀한 전개가 압도적으로 독자를 사로 잡는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홀리 세던(Holly Seddon)은 15년간 영국의 여러 뉴스 보도국에서 일하다가 국영방송, 소비자단체, 간행물에 글을 기고하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 SEVEN MINUTES IN HEAVEN

가제 : 천국에서의 7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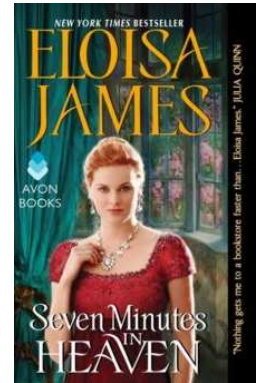
저자 : Eloisa James

출판사: Avon Books

발행일: 2017년 1월 31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소설/ 역사 로맨스



- * 로맨스소설 협회상(RITA) 수상자, 전 세계 20여 개국에 판매된 로맨스 소설의 거장이 완성한 **<DESPERATE DUCHESSES BY THE NUMBER>**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
- * “역사 로맨스의 여왕이 선사하는 또 하나의 생생하고 즐거운 이야기.” – 「커커스 리뷰」
- * “감각적인 로맨스와 기 막히는 위트, 쉽사리 잊히지 않는 입체적인 등장인물이 모든 면에서 만족감을 주는 소설” – 「북리스트」

현재 우리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기준과 통념 중에는 불과 100- 200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거나 상식에 어긋난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있다. 특히 여성이 사회에서 차지하던 지위와 권리, 개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대대로 물려지는 가문의 위상이 우선시되던 풍토는 지금 우리로서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동시에 당시 사람들의 삶과 사랑은 어땠을까 하는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사실이다. 그 호기심을 흥미진진한 사랑 이야기와 잘 엮어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역사 로맨스 소설의 거장으로 인정 받는 저자는 18세기 영국 사회를 무대로, 또 한 편의 짜릿한 이야기를 완성했다. 『레이디 엑스와의 3주(THREE WEEKS WITH LADY X)』, 『공작과의 4일(FOUR NIGHTS WITH THE DUKE)』에 이은 ‘숫자로 보는 공작부인의 위기(DESPERATE DUCHESSES BY THE NUMBER)’ 시리즈의 제3편으로,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사업가로 당차게 살아가는 여주인공 유제니아와 고집불통에 융통성도 없지만 따뜻한 인정이 있는 남자 주인공 에드워드의 불꽃 튀는 로맨스가 펼쳐진다.

어느 백작의 사생아로 태어난 에드워드는 양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뜻밖의 과제를 떠안는다. 배다른 두 어린 동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돌봐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게 된 것이다. 양어머니는 남편이 밖에서 낳아 데려온 에드워드를 친아들처럼 극진히 키워준 분이라 그 부탁을 절대 무시할 수 없었다. 게다가 에드워드를 사사건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두 동생의 외할머니가 눈에 불을 켜고 동생들을 빼앗아가려는 통에, 일은 한층 더 다급해졌다. 에드워드는 이 사태를 두 가지로 썩 해결하리라 다짐한다. 먼저 동생들을 도맡아 공부도 가르쳐줄 유능한 가정교사를 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얼른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자리를 잡는 것이다. 일단 첫 번째 계획부터 달성하기 위해, 에드워드는 고객에게 꼭 맞는 가정교사를 소개해주는 영국 최고의 에이전시 소문이 자자한 젊은 미망인의 사무실로 찾아간다. 그때만 해도, 이 만남이 자신이 계획한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유제니아는 7년 전, 평생을 사랑하리라 다짐한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부터 가정교사 에이전트로 사업을 시작했다. 남편과 사별한 다른 귀족부인들처럼 집안 대대로 물려 받은 돈이나 축내고 차나 마시고 온갖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생활에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그런 무익한 생활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판단한 유제니아는 특유의 강한 면모를 심분 발휘하여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뒤에서 수군대는 작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밟아주며 사업가로 당당히 성공했다. 비록 떠나버린 남편을 아직 잊지 못해 가끔 슬픔에 젖을 때도 있지만, 유제니아는 자신의 일에 진심으로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 막무가내 귀족, 에드워드가 벌컥 사무실에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누구보다 예리한 판단력을 가진 유제니아도 에드워드의 두 동생들에게 맞는 교사를 찾는 일에는 두 번이나 실패하고 말았다. 온 유럽을 떠돌며 불안정하게 살아온 탓에 여느 아이들과는 다른 면모를 지닌 두 아이를 교사들이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잔뜩 화가 난 에드워드는 한 가지 큰 실수를 하고 만다. 유제니아 역시 자신처럼 귀족 집안의 여성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분명 전직 가정교사일 거라는 확신으로 그녀를 반강제로 납치하여 자신의 집에 교사로 데려간 것이다. 유제니아는 남편을 여윈 후 처음으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든 에드워드의 부탁을 무작정 거부하지 못했고,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그러나 에드워드와 다시 결혼을 한다면 유제니아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남편이 생기면 법률에 정해진 대로, 힘들게 키워온 사업도 모두 남편 손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태 마음껏 누리온 자유로운 생활도 청산해야 한다. 그럼에도 유제니아는 에드워드의 동생들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아이들 역시 유제니아가 아낌없이 보여준 진심 어린 애정과 이해심에 서서히 웃음을 되찾아간다. 그리고 유제니아는 자신을 간절히 원하는 에드워드에게 흔들리는 마음 또한 점점 다잡기가 힘들어진다.

두 사람의 애뒤틀린 감정이 만들어내는 애뒤틀린 로맨스와 더불어 해묵은 사회적 편견과 계급 문제,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낸 상실의 감정을 함께 녹여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엘로이사 제임스(Eloisa James)는 시인 로버트 블라이와 단편소설 작가 캐롤 블라이의 딸 메리 블라이(Mary Bly)의 필명이다. 뉴욕의 포드햄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로맨스 소설 작가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교에 이어 예일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 『The Pleasures』 3부작, 『The Duchess』 4부작, 『The Desperate Duchesses』 8부작 등 수많은 역사 로맨스 시리즈와 중편소설, 회고록 등을 발표했다.

제목 : SADNESS IS A WHITE BIRD

가제 : 슬픔은 하얀 새가 되어

저자 : Moriel Rothman- Zecher

출판사: Atria (Simon and Schuster)

발행일: 2018년 봄

분량 : -

장르 : 소설/ 전쟁소설



* “세상의 벽과 폭력에 저항하며 자신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심오하게 그린 이야기.” – 맨부커 상 결선 후보작 **「DO NOT SAY WE HAVE NOTHING」**의 작가 마들렌 티엔

* “성스러운, 망가진 도시가 공존하는 현대 이스라엘을 독창적으로 세밀하게 통찰한 이 책에서 작가는 고국의 가슴 아픈 진실을 날카롭게 꿰뚫고 씬 없이, 고통스럽게 벗겨낸다.” – 폴리처 상 수상작 **「MARCH」**의 작가 제럴딘 브룩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모세의 기적과 함께 탈출한 뒤 정착한 가나안 지역, 지중해와 아프리카의 교차로에 설립된 ‘유다 왕국’은 수십 년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93년 팔레스타인의 자치 정부가 수립되고 이제는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군과 이슬람 수니파로 이루어진 팔레스타인 테러집단 하마스의 대립과 폭력 사태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다. 모든 전쟁이 비극이지만, 가장 큰 비극은 가족처럼 함께 지내던 같은 민족이 어느 날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적으로 정의되고 심지어 직접 그들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스라엘 출신의 작가는 이 책에서 열아홉 생일 직후 이스라엘 군에 들어간 주인공 조나단이 가장 절친한 친구 레이스와 레이스의 쌍둥이 여동생이자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님린을 생각하며 읊조리듯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이 비극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감방에 수감된 조나단은 창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며, 레이스에게 말을 걸듯 혹은 편지를 쓰듯 자신이 왜,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갇힌 신세가 됐는지 이유를 찾으려 애쓴다. 이스라엘 사람인 조나단과 팔레스타인 사람인 두 남매는 조나단이 군에 입대하면서 이미 서로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상처를 입었다. 잃어버린 친구를 향한 사과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해명, 고백이 뒤섞인 조나단의 이야기에는 두 민족의 갈등이 빚어낸 냉혹한 현실이 칼처럼 정확하게 담겨 있다.

님린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지어줄 이름까지 다 정해뒀던 조나단은 군대만은 가지 않길 바랐던 님린과 레이스를 뒤로 하고 군인이 되었다. 열아홉 생일이 딱 이틀 지난 뒤 바로 징병된 그는 분명 군인이었지만 지금은 빛이 열게 새어 들어오는 감방 안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한다. 징병 직전, 생일날 아침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지금 온 얼굴이 수염으로 뒤덮인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도 놀라면서, 조나단은 징병 직후 처음에 배치된 부대에서 지금까지

지 있었던 일들을 일기를 쓰듯, 혹은 바로 옆에서 친구가 듣고 있는 것처럼 세세히 전한다.

이스라엘 군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아랍인이라 불렀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명칭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님린에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꼭 지켜주겠노라 약속한 조나단은 부대에서 처음 맡긴 임무인 마을 정찰을 돌면서 자신도 모르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낀다. 그가 만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복을 입고 총을 든 조나단에게 상당히 적대적이었고, 두고 온 레이스와 님린을 떠올리며 다정한 태도로 이것저것 물어보는 조나단을 향해 ‘도와주고 싶으면 꺼져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 자신들이 고향이라 여기는 땅은 원래 자신의 땅이라는 주장과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해외에서 지원군까지 와 있는 상황을 조나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굳건한 믿음처럼, 조나단 역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머무는 땅이 원래 유대인의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근처에 이스라엘 군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리는 간접적인 위협은 서서히,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위협과 폭력으로 번지기 시작한다. 레이스를 향한 조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군인이 되어 경험한 일들과 더불어 미국에서 자란 어린 시절의 기억과 두 남매와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에 대한 그리움이 배어 있고, 선택의 여지 없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신이 가족, 조국에게 느끼는 자연스러운 충성심과 우정, 윤리적 가치관, 군인으로서 짊어진 의무 사이에서 터져버린 갈등이 하나 둘 전해진다. 그리고 마침내 조나단을 군인이 아닌 죄인으로 만든 ‘범죄’의 실체가 드러난다.

처절한 갈등의 중심에 놓인 한 청년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전쟁의 폐해와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빚어낸 가슴 아픈 상처를 섬세하게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모리엘 로스먼 제커(Moriel Rothman- Zecher)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미국 오하이오에서 자랐다. 미들버리 대학교에서 아랍어와 정치사회학을 공부하고, 2017년 예술가 양성 프로그램인 맥도웰 콜로니(MacDowell Colony Fellowship)에서 문학 부문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마이클 셰이본(Michael Chabon)이 편집한 문집 『Kingdom of Olives and Ash』 출판에 부편집자로 참여했다.

NON- FICTION

제목 : THE DARKENING WEB

가제 : 인터넷 암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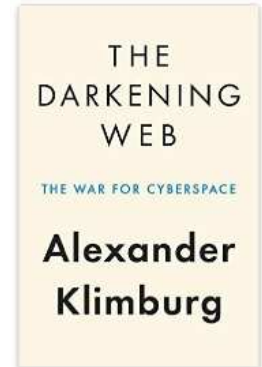
저자 : Alexander Klimburg

출판사: Penguin Press

발행일: 2017년 7월 11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기술



- * “사이버 공간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섬뜩하지만 풍성한 정보를 잘 풀어서 제공한 책” – 하버드 대학교 교수, 『*The Future of Power*』의 저자 조셉 나이
- * 미국 대선에 결정타를 날린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으로 더욱 주목 받고 있는 사이버 전쟁과 안보에 관한 집중 분석

지난 반세기 동안 인터넷만큼 인류의 삶에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킨 단일 요소는 없을 것이다.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대다수가 미심쩍은 눈으로 보았던 인터넷은 그저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자유와 다양성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수단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누구든 아이디어나 정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은 곧 유토피아적 이상이 실현되는 기적 같은 도구로 위상이 바뀌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은 처음의 예상을 뒤엎고 축복의 기술로 여겨진 것처럼 또 다시 예상치 못한 길로 접어들었다.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닌 무기이자 전례 없이 강력한 지배의 수단이 된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국가들은 너도나도 사이버 공간을 그 일차적인 도구로 활용하려 하고, 자국에 도움이 된다면 인터넷이 선사한 세계와의 연결관계도 과감히 끊어버린다. 왜 이런 변화가 시작됐고, 어디로 나아갈까? 인터넷이 성장하던 시기에 함께 성장하며 세상의 변화 과정을 지켜본 세대이자 사이버안보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이 위험천만한 변화를 집중 분석한다.

인터넷의 발전 가능성이 처음에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듯, 벌써 시작된 파괴적 영향력도 과소평가되고 있다. 저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혹은 타국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인터넷을 장악하려는 국가들의 과도한 야망이 어떤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설명한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은 새로운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일으키는 무대가 되었으며, 이는 사이버 전쟁이나 온갖 형태로 변형된 해킹 기술의 급증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이러한 갈등이 각국의 평화 유지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와 더불어,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의 문제 즉 현실을 왜곡된 형태로 만들어 삽시간에 퍼뜨리는 정보 전쟁은 세계를 장악하려는

국가들의 그릇된 야욕을 채우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 인터넷의 전통적인 위험성과 더불어 이제는 민주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다.

저자는 다양한 실제 사례와 여러 입장, 주체에서 비롯된 주장을 능숙하게 종합하여 현재 사이버 공간에 발생한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설명한다. 도시문명의 기반시설을 뒤흔들 수 있다는 종말론적 예측부터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는 ‘1984’식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중국과 미국,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를 둘러싼 갈등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세계 정세를 고려하여 이 새로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해법을 제시한다.

각자의 열망과 목적에 따라 사이버 공간이 얼마나 다르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인류 전체의 중요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지 설명한 시기 적절한 정보서다.

<목차>

머리말

1부.

- 1장. 사이버 공간의 몸체
- 2장. 마음이 물질을 넘어서다

2부.

- 3장. 누구든 신이 될 수 있다
- 4장. 도메인 지배
- 5장. 부자들의 사이버 공간

3부.

- 6장. 우리 외엔 다 안돼
- 7장. 경계를 넘기 위한 공격
- 8장. 전략적 비아냥

4부.

- 9장. 러시아의 보이지 않는 전쟁
- 10장. 실로비키와 사이버 범죄

(이하 생략, 총 6부, 17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알렉산더 클림버그(Alexander Klimburg)는 헤이그 전략연구센터(The Hague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사업총괄과 아틀란틱 협의회(Atlantic Council) 비상임 선임이사를 맡고 있다. 여러 국가의 정부와 국제기관에 사이버안보 전략과 인터넷 통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다.

제목 : MISPLACED TALENT

가제 : 엉뚱한 재능관리 바로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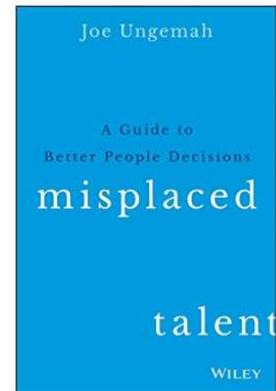
저자 : Joe Ungemah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5년 6월 22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경영



*** 현 시대에 맞는 최적의 재능 경영 기술, 도구, 전략에 관한 경영 지침서**

*** 지난 1세기 동안 개발된 도구와 기법, 기술을 분석하며 현대 업무 현장에 적합한지 점검**

빅데이터의 시대,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구성원의 재능 관리에 관한 확실하고 쓸모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지금도 여전히 고용, 승진, 능력개발, 이직이 불분명한 논리나 반짝 유행하는 아이디어,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저자는 ‘의사결정’에 주목하고, 이 책에서 각 조직이 의사결정에 가장 흔히 활용하는 생각과 도구를 자세히 뜯어보고 실용성과 과학적인 정밀성이라는 독특한 잣대로 평가하여 정말 효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한다. 더 행복한 직장, 더욱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전 단계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얻을 수 있다.

저자는 지난 1세기 동안 개발된 각종 도구와 기법, 기술을 철저히 분석하며 현대 업무 현장에 실제로 얼마나 적합한지 하나하나 따져본다. 이를 통해 직원과 조직 전체가 보유한 역량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과 현재 시행 중이지만 아무런 가치도 없고 시간, 돈을 잡아먹는데다 있는 재능도 잃게 만드는 업무 방식을 가려낼 수 있다. 현대 사회에 가장 적합한 이론과 실무를 토대로 보다 타당한 전략을 세우고 각자의 조직에 알맞은 방식을 새로이 구성할 방안을 찾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목차>

1장. 조직체계

- 직업 분석의 기원
- 직업 분석의 기술과 과학적 원리
- 행동의 단순성
- 거래조건
- 조직체계의 장점과 단점

2장. 재능의 획득

- 한 가지 브랜드로는 부족하다
- 현실을 직시하자

-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 메시지를 시장으로
- 결과가 나오기까지

3장. 역량 평가

- 가치와 위기 요소 평가하기
- 법적 요건
- 지식, 기술, 능력
- 업무 시뮬레이션
- 현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4장. 심리 평가

-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실험
-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
- 성격 특성
- 공유되는 가치
- 동기를 가진 구성원은 일에 참여한다
- 시간 흐름과 세대에 따른 동기의 변화
- 개인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균형 회복

5장. 인적자원 개발

- 심리적 계약관계
- 개발에 필요한 평가
- 여러 가지 문제점
- 지도, 조언을 통한 조력
- 함께 가거나 따로 가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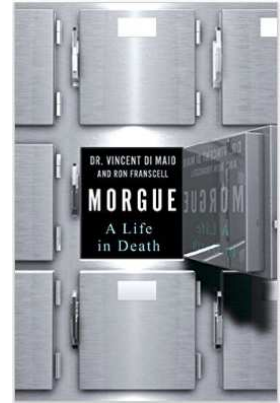
6장. 변화

- 심리적 계약관계 파기하기
- 계승 계획
- 높은 잠재력과 기민한 학습 능력
- 업무 수행을 유도하는 힘
- 빅데이터, 그리고 변화에 주시하기
- 균형을 토대로 한 사업적 계약

<저자 소개>

조 웅게마(Joe Ungemah)는 공인 심리학자로 재능 경영 분야에서 전문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제목 : MORGUE: A LIFE IN DEATH
가제 : 영안실: 죽음 뒤의 삶
저자 : Vincent Di Maio, Ron Franscell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6년 5월 17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전기/의학



- * “뉴스에서만 접한 사건의 실상과 놀라운 역사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다.” - **CBS** 인기 드라마 **NCIS** 출연배우 데이비드 맥컬럼
- * “세계 최고의 검시관과 세계 최고의 범죄 분야 저술가가 팀을 이뤄 법의학의 명작을 탄생시켰다. **CSI** 팬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Black Dahlia Avenger**』의 저자, **LA** 경찰국 살인사건 담당형사

법医学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나 영화의 인기는 여전히 뜨겁다. 범인을 찾아내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도 증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용의자의 정체를 서서히, 한 꺼풀씩 드러내는 법의학의 매력은 무엇일까? 법의학의 기술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숨죽이고 따라가게 만드는 건 바로 ‘죽음’이다. 평범한 시민, 유명인사, 사회지도자 등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차가운 시체가 되어 영안실 어느 한 칸을 차지한 이유, 어쩌다 부검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하기 때문일 것이다. 굳어버린 피, 부서진 뺨조각, 눈에 보이지도 않는 피부 조각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이 정교하고 복잡한 법의학의 세계가 드라마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일상이고 전문 분야인 저자는 미국에서 일어난 여러 범죄들을 소재로, 법의학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생생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들려준다. 뉴욕 시 검시관으로 명성을 날린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 받아 검시관의 길을 40년 이상 걸어온 빈센트 디 마이오 박사는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 리 하비 오스왈드의 시체를 무덤에서 파냈던 이야기부터 흑인이고 검은색 후드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아무 죄 없이 백인의 총에 맞아 숨진 플로리다의 십대 소년 트레이본 마틴 사건, 유아만 골라 살해한 연쇄살인마의 실체를 찾기까지의 과정과 함께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죽음을 둘러싼 수수께끼를 이야기한다. 실제 사건을 파헤친 년픽션 도서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론 프랜셀의 글로 전해지는 디 마이오 박사의 경험과 사건의 전모는 스릴 넘치는 소설처럼 긴장이 가득하다.

생생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법의학자들의 실제 사건 조사 과정과 업무 방식도 흥미를 더한다. 법의학이 대중적인 관심을 얻게 된 후에도 실제 법의학자의 수는 늘어난 범죄에 비해 부족하고, 살인사건만 이들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온갖 잔인하고, 추악하고, 지저분한 단서를 처리해야 하는 고된 일상의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법의학에서 증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보여준다. 설사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답이 아닐지라도.” 두 저자가 법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원칙을 바탕으로,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과 범인의 윤곽을 퍼즐 맞추듯 하나 둘 찾아가는 과정은 범죄 관련 장르를 좋아하는 일반인은 물론 법医学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전문가 모두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목차>

서문. 퍼즐에 관한 이야기

1. 흑인과 백인, 그리고 죽음
 2. “왜” 그렇게 절개했을까
 3. 텅 빈 놀이방
 4. 알아챌 수 없는 폭발
 5. 리 하비 오스왈드의 무덤을 파헤치다
 6. 우리들 틈에 서 있는 괴물들
 7. 비밀과 퍼즐
 8. 죽음, 정의, 그리고 유명인사
 9. 멤피스 서부의 유명
 10. 빈센트 반 고흐의 흥미로운 죽음
- 맺음말. 존재의 끝에서

<저자 소개>

빈센트 J. M. 디 마이오(Vincent J. M. Di Maio)는 병리학 박사로서 세계적인 총상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40년 넘게 9천 건이 넘는 부검을 실시하며 미국 사회에서 가장 주목 받은 범죄조사에 참여했다. 2006년까지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수석 검시관을 맡았고 현재 미국 법의학 병리학 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Forensic Medicine and Pathology) 편집장을 맡고 있다. 2014년에는 미국 법무부 사상 최초로 구성된 ‘국가 법의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사망사건 조사에 관한 연방법률 일원화 작업에 참여했다.

론 프랜셀(Ron Franscell)은 베스트셀러 『The Darkest Night』와 『Delivered from Evil』을 쓴 작가로 워싱턴 포스트, 시카고 선 타임스, 덴버 포스트 등 여러 간행물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다. 년픽션 분야의 도서와 더불어 소설 『Angel Fire』, 『The Deadline』도 발표했다.

제목: ICE CREAM FOR BREAKFAST

가제: 아침부터 아이스크림 좀 먹으면 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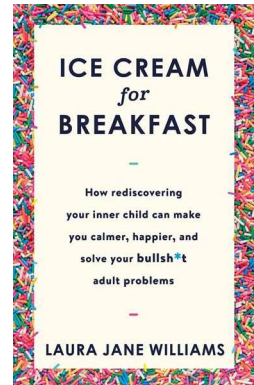
저자: Laura Jane Williams

출판사: Hodder & Stoughton

발행일: 2017년 4월 20일

분량: 224 페이지

장르: 자기계발



* 프랑스 판권 계약 체결

* 모두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깨워 더 침착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 줄도 모른 채 매일 신나고 재미 있는 일만 가득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대부분 갖고 있을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고 싶은 놀이,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같이 뛰어 다니고 싶은 친구들, 먹고 싶은 간식이 너무 많아서 전부 이것저것 하다 보면 밤이 되고 굶아 떨어지던 그 시절은 성인이 되면 싹 사라져버린다. 원하는 것보다는 ‘해야 하는 것’이 많아진 어른들은 책임에 눌려 또 다른 의미에서 세월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 어른이 되면 의무와 책임감이 버거워도 그런 채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어린 시절의 단순하고 유쾌한 모습을 다시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자는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고갈된 어느 날 무턱대고 시작한 보육 아르바이트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 책에서 아이처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소개한다. 자유롭고 즐거운 어린아이의 모습을 일깨울 수 있다면 무겁게만 느껴지던 온갖 문제의 풀릴 실마리를 의외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럿이 한데 어울려 노는 아이들은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활기찬 에너지가 전해진다. 아무 것도 아닌 일에 깔깔대며 웃음을 터뜨리고 갑자기 고집을 피우고 제멋대로 하려고 하다가 서로 치고 받으며 싸우기도 한다. 그러다 친구를 꼭 껴안아주고, 손을 잡고, 같이 뛰다가 넘어져서 뒹굴고, 어른들 흉내를 내며 못된 말을 하며 말다툼도 벌인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얼른 주저 없이 물어보고, 화가 나면 그대로 표현한다. 이 모든 모습에서 느껴지는 공통점은, 아이들이 더도 덜도 없이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서 한없이 아끼고, 사랑도 분노도 고스란히 드러낸다. 그리고 어른과 달리,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태생적으로 무엇이든 궁금해하고, 한계 같은 건 알지도 못한다. 이 모든 특징 속에 우리 어른들이 매일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문제를 날려줄 모든 해답이 들어 있다. 저자는 오랫동안 우리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혹은 우리가 어른‘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억눌려온 이런 어린아이의 본능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안내한다. 칭찬 받을 일 하기,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슬플 때 보드랍고 따스한 물건을 잠깐 얼굴에 대기, 깜짝 놀랄 만큼 신기하고 멋진 것을 발견했다면 잠시나마 큰 소리로 감탄하기, 그리고 오로지 놀기만 하는 시간 만들기 등 그리 어렵지 않게 일상 속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아이처럼 살기’ 전략을 배울 수 있다.

무작정 어린이처럼 때를 쓰고 마음대로 다 하는 대신, 순수하고 솔직하고 명쾌한 아이들의 모습을 배워보자는 취지로 완성된 이 책은 제목처럼 우리가 아주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는 쓸데없는 원칙에서 과감히 벗어날 것을 독려한다. 어른이라면 이래야 한다, 어른답지 못하다는 답답한 경계에서 벗어나 조금은 말썽꾸러기처럼 쾌활하고 즐겁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접할 수 있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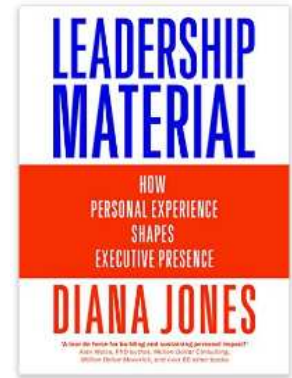
머리말

1. 아이 같은 것과 유치한 것의 차이
 2. 일단 잠부터 자라.
 3. 일상을 사건으로
 4. 마음 가라앉히기
 5. 결정에 대하여
 6. 10초마다 화내는 사람
 7. 무한한 사랑, 끝없는 경계
 8. 용서, 또는 그 비슷한 것
 9. 마땅히 누려도 되는 몇 가지
 10.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
 11. 당당하게 집착하라
 12. 내 아이들에게 하고픈 말, 내 아이들이 자식들에게 전했으면 하는 것
- (이하 생략, 총 40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로라 제인 윌리엄스(Laura Jane Williams)는 잡지 「마리끌레르」의 정기 기고가로 활동하면서 블로그 ‘Superlatively Rude’를 운영하고 있다. 가디언, 그라지아 등 여러 매거진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런던 시민의 토론과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단체 IRL Panel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BECOMING』 등이 있다.

제목 : LEADERSHIP MATERIAL
가제 : 무엇이 리더십을 만드는가
저자 : Diana Jones
출판사: Nicholas Brealey
발행일: 2017년 4월 25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경영



- * “저자는 리더란 어떤 일을 하는가와 더불어 그 일을 언제 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 *‘Thought Leaders Global’*의 창립자, *‘Amplifiers’*의 저자 맷 처치
- * “리더가 해결하기 힘든 다소 불편하고 어려운 주제를 다룬 책,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성공에 가속도를 내고픈 전문가라면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 *‘Brand Tumaround, Brain Tattoos’*의 저자 카렌 포스트

리더는 일과 사생활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리더 자신이 그와 같은 기준을 세우고, 일과 무관한 대화는 되도록 삼가거나 조직 구성원들과의 사적인 접촉은 최소한으로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30년 이상 CEO와 중간관리자들의 리더십 코치로 활약해온 저자는 이것이 그리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라 단언한다. 상대와 공감하는 일, 연민을 그대로 전하는 것, 진심이 담긴 의사소통과 같은 인간적인 면모에는 리더 개개인의 경험이 녹아 있고, 팀원들은 그 면을 보고 느낄 때 친밀함과 업무 동기를 한꺼번에 얻는다. 리더의 존재감을 보다 강력하게 굳히는 동시에 리더가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업무 성과도 자연히 향상된다. 저자는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 받는 숙련된 리더들과 진행해온 실제 코칭 사례를 제시하며, 이 같은 변화가 왜, 어떻게 가능한지 이 책에서 설명한다.

구성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싶다면, 리더가 동료의 한 사람으로 일하는 동시에 객관적인 업무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즉 거리낌 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되 아무 긴장 없는 친목 모임이 되지 않도록 그 경계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동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따지지 않는 것이다. 저자는 리더가 직원 개개인의 성격 특성과 조직에서 각자 맡고 있는 역할을 모두 고려하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쌍방향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리더가 상대의 재능과 역량, 노력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일 때 서로 최선을 다해 같은 목표로 일할 수 있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크게는 사업 목표를, 작게는 부서와 팀 단위로 업무 목표를 세우고 누가 그 일을 ‘주도할’ 것인지부터 정한다. 그러나 저자는 여러 사람이 한 가지 일에 뛰어들 때, 공식적으로 정해진 직함이나 기능과 상관없이 누가 봐도 리더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라고 설명한다. 조직이 정한 리더와 이 ‘진짜’ 리더가 일치한다면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어긋날 경우 구성원들은 혼란스러워지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저자는 실

제 사례와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며 바로 그와 같은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업무 환경에서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행동, 관계 형성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리더의 언어, 일에서나 관계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리더의 부적절한 행동을 수정하는 법,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 새로운 관계 형성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법,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감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 등 저자가 실제로 활용해온 구체적인 전략을 배울 수 있다.

리더가 기존의 통념을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한 개인으로서의 가치관, 인간적 특성을 적절히 조합하여 편안하고 생산성 높은 조직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유익한 경영서다.

<목차>

머리말

- 1장. 이성적인 리더의 시대는 끝났다
- 2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 법
- 3장. 관계의 작용
- 4장. 인식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 5장. 거울보기
- 6장. 전문가다운 발전이란 무엇일까
- 7장. 성과와 성공을 가능하는 정교한 기술
- 8장. 표범도 점박이 무늬를 바꿀 수 있다
- 9장. 마지막 한 방: 리더의 언어
- 10장. 비난보다 긍정적인 자극에서 권력이 나온다

<저자 소개>

다이애나 존스(Diana Jones)는 30년 넘게 기업 CEO와 관리직의 리더십 코치로 활동해 왔다.

제목 : SILVER: NATURE AND CULTURE

가제 : 은: 특성과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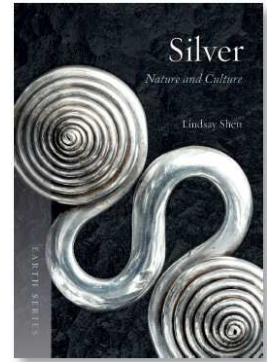
저자 : Lindsay Shen

출판사: Reaktion Books

발행일: 2017년 5월 15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역사/문화



- * 은의 역사와 문화, 과학적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쉽게 분석한 책
- * 옛 소아시아 지역과 고대 그리스, 볼리비아, 중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은에 부여한 의미와 강력한 영향력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 * 다양한 은 장신구, 예술품이 담긴 멋진 사진 자료 포함

인류는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용도로 은을 활용해 왔다. 실용적인 도구로, 몸을 치장하는 액세서리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은 물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귀신을 쫓고 심지어 냄새 나는 옷과 양말의 악취를 빼는 특별한 용도까지 참 쓰임새도 다양하다.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키보드에도 은이 들어가고, 충치 치료에 재료로도 사용된다. 누군가는 은의 치유력을 믿고 일반적인 약 대신 은이 함유된 알약을 삼키고 어떤 투자 전문가는 은을 사놔야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처럼 무궁무진한 용도로 오래 전부터 인류 가까이에서 함께 역사를 만들어온 이 친숙한 금속의 모든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한다. 광물로서 지구에 어떻게 맨 처음 등장하게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부터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대륙 곳곳에서 거래되고 화폐로 이용된 역사, 현대에 들어 나노 기술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의 바탕이 된 과정,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여 사회적, 정치적으로 가공할 만한 영향을 남긴 이야기와 평범한 사람들에게 은이 선사한 수많은 기능과 의미까지 은의 역사와 특성을 광범위하게 살펴본다.

광물 하나가 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수백 만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 은은 대략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고 지구 대륙 중 은이 활발하게 출토되는 지역의 특징은 무엇일까? 맨 처음 은이 발견된 시기는 언제이고, 다른 광물과 달리 귀한 금속으로 분류된 까닭은 무엇일까? 책 첫 부분에서는 이처럼 은의 탄생과 인류 문화에 처음 등장한 시기, 인류가 최초로 부여한 의미와 가공 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두 번째 주제는 은을 다루고 세공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제대로 다들 으면 마치 수면처럼, 거울처럼 반짝이는 은의 특징적인 광택을 내기 위해 인류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살펴본다. 단단하게 굳은 고체임에도 액체 같고 살아 있는 느낌을 주는 은의 독특한 매력은 특별한 도구와 장인들이 갖고 닦은 기술과 만날 때 극대화된다. 이어, 저자는 은이 금처럼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역사를 소개한다. 금과 같이 은에도 순도가 공식적으로 표시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은에는 재산 가치가 부여되어 무려 5,000년 전부터 경제와 무역에 커

다란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은 광산의 소유권은 나라의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제국을 건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멀리 떨어진 대륙간 무역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정치적 관계와 국제 정세의 흐름에 영향을 주었다. 저자는 은의 순도를 분석하고 공식화하면서 시작된 이 대대적인 변화를 상세히 설명한 후, 화폐나 재산으로 더 유용한 금속이 등장하면서 은의 가치와 기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한다. 균을 없애는 효과가 발견된 이후 미신 같은 부적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항균 성분으로 활용된 과정, 은의 높은 전도율을 십분 활용한 전자산업 등 일상생활에 보다 친숙하게 들어온 은의 역할이 소개된다.

인류의 역사와 문화가 집약된 아름다운 금속, 은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흥미로운 정보서다.

<목차>

머리말: 은에 대하여

1. 은의 특성
2. 은으로 보는 풍경
3. 변신
4. 제국의 건립: 세상을 바꾼 두 개의 동전
5. 신세계에서 중국으로 흘러간 은의 강물
6. 새로운 수요
7. 지위의 상징
8. 순수성

<저자 소개>

린지 쉰(Lindsay Shen)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탬프먼 대학교 미술관 관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Knowledge is Pleasure: Florence Ayscough in Shanghai』 (2012)가 있다.